

현안과 과제

| 한미 FTA
- 어떻게 활용할까를 준비할 때다

1. 美 의회의 한미 FTA 비준과 현안

○ (美 의회 한미 FTA 비준) 10월 12일 美 의회는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전격적으로 통과

- 백악관이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가결됨으로써 2007년 FTA협상 서명이후 4년 3개월에 걸친 비준 절차가 미국에서 먼저 마무리
- 이번 비준 처리는 10월 3일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로는 6일만에 처리되어 미국 역대 FTA 중 최단시일 통과 기록
-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미 의회는 FTA 이행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무역협상촉진권한¹⁾ 절차를 밟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 미 의회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측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은 상황임
- 한미 FTA의 재재협상 요구 및 비준안 반대 등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미국측에서 먼저 FTA 비준안이 통과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까지 이뤄진만큼 국회에서도 올해 안에 비준안이 통과될 전망

< 한미 FTA 협상 주요 일지 >

날짜	내용
2006. 2. 3.	한미 FTA 추진 발표 (미 상원의사당)
2006. 6. 5~2007. 3	한미 FTA 1~8차 공식협상 개최
2007. 4. 2.	한미 FTA 협상 타결
2007. 6. 30	한미 FTA 서명 (워싱턴)
2010. 11. 30~12. 3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12. 3 추가협상 타결)
2011. 2. 10.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 6. 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 9. 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제출
2011. 10. 3	한미 FTA 이행법안, 美 의회 제출
2011. 10. 5	한미 FTA 美 하원 세입위 통과
2011. 10. 12	한미 FTA 비준안, 美 의회 상·하원 통과

자료 : 외교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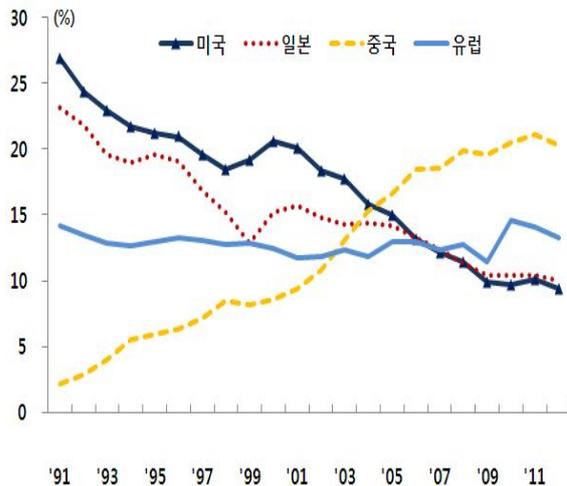
1) 무역협상촉진권한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맺은 통상협정 등을 의회가 수정없이 가부만을 표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상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임.

2. 한미 교역 현황 및 한미 FTA 효과

○ (한미 교역 현황 및 FTA 효과) 한국의 대미 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교역 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

- 1990년 이후 한국의 대미 교역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효과로 대미 교역 비중이 다시 증대할 것으로 기대
 - 1990년 대미 교역은 360억 달러로 비중 25%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현재 중국(20.3%), 유럽(13.3%), 일본(10.0%)에 이어 9.3%에 불과
 -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대미 교역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4억 4,000만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억 4,000만 달러만큼 흑자가 확대²⁾
- 대미 수출 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및 GDP 증대 효과가 기대됨
 -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6.5%)이 추가 인하됨으로써 대미 수출 증대가 기대됨.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현재 무역수지는 66억 5,000만 달러임
 - 정부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 발효시 교역 증대, 자원배분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7% 상승, 취업자는 35만 명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³⁾

< 한국의 주요국 교역 비중 추이 >



자료 : Reuters.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USTR, 무역협회.

2)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 달러 증가, 수입도 11.5억 달러 확대. 대세계 수출은 31.7억 달러 증가, 수입은 4억 달러 증가하여 대세계 교역량은 35.7억 달러 확대 전망. (정부연구기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3) Ibid.

3. 한미 FTA의 산업별 파급 영향

○ (수혜 산업)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협정이 발효될 경우 관세 철폐 등으로 자동차, 섬유, 철강 및 전기·전자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산업** : 한국 자동차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미국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세 철폐시 상대적으로 한국 자동차업체의 수혜가 예상
 - 지난 FTA 추가 협상으로 2.5%의 자동차 관세 철폐가 발효후 4년뒤로 늦춰졌으나 미국 현지생산 시설 확보 및 자동차 부문의 경쟁력이 증대되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완성차와 달리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국 부품업체의 경쟁력이 높아 협정 발효시 가장 큰 수혜 부문이 될 전망
 - 자동차부품업체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현지 한국차의 생산 cost 절감으로 이어져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 **섬유 산업** : 대미 수출품의 7위(약 12억달러, 2010년 기준)에 해당하는 섬유 산업은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됨
 - 한미 FTA 발효시 주력 수출품목인 스웨터(관세율 32%), 폴리에스터 섬유(관세율 4.3%), 양말(관세율 13.5%) 및 남성 셔츠(관세율 28%) 등을 포함한 16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
- **통신서비스업** : 시장지배적 사업자(1,2위 업체)외국인 투자지분이 49%로 유지됨에 따라 국가 기간 산업이 보호되는 동시에 국내 법인을 통한 후발업체들에 대한 100% 지분 한도 허용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가 기대
- **철강 산업** : 철강 교역은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FTA 합의로 비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완만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
 - 미국이 그동안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밤덤핑판정과 상계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을 빈번하게 발동시켜 왔음
 -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14건 중 스테인리스 강관, 스텐다드 강관, 철강관재류,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후판코일, 스테인

- 리스 박판코일, 강철후판, PC강선, 연벽사각파이프 등 9건이 철강제품일 정도로 철강재 수입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력함
 - FTA 발효시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와 반덤핑 조사 개시전 사전 협의 조항으로 미국의 철강재 수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
- **전기·전자** : FTA로 인해 한미간 교역 증진 및 활성화 효과로 미국내 수요 증대 및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후방 효과가 기대
- 휴대폰과 반도체 등 IT업종과 냉장고, TV등 가전업종은 이미 무관세 또는 현지 생산 등으로 FTA 관세 철폐로 인한 수혜는 적을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TV, 세탁기 중 많은 비중이 이미 무관세지대인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FTA 규제 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
- **(피해 산업) 한미 FTA 발효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축수산업과 제약업, 기계 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피해가 예상**
- **농축수산업** : 관세가 철폐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월한 미국의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
 - 축산업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가 현재 40%과 25%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 감소 불가피
 - **제약업** :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복제의약품 생산에 주력해 온 국내 제약사의 피해가 불가피.
 - 복제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규정'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의 복제 의약품 개발 지연과 비용의 증가로 피해 발생이 우려
 - 한편 국내 업계는 의약품 안전 관리 기준이 아직 미흡하여 대미 수출은 제한되는 반면, 외국계 제약사의 국내 시장 잠식이 커질 것으로 전망
 - **기계 산업** :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모가 큰 첨단 장비와 공작 기계의 수입이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약한 생산 기반을 가진 중소 제조업체들의 피해 우려
 - **건설업** : 고수익 민자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 건설사의 진출로 시장 잠식이 예상되며 특히 미국 엔지니어링 분야의 상대적 기술 우위로 중소 업체의 피해 발생 우려

- 방송 및 서비스업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쿼터 축소로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금융(보험중개업)과 법률 부문에서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

< 한국의 대미 10대 수출·수입품 > < 한미 FTA에 따른 수혜 및 피해 업종 >

순위	수출품	수입품
1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2	자동차	전기제품
3	기계·컴퓨터	광학기기
4	석유·석탄	석유·석탄
5	철강제품	항공기
6	고무제품	곡물
7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
8	철강	철강
9	플라스틱	육류
10	광학기기	플라스틱

수혜업종	피해업종
자동차 및 부품관련	농축수산업
섬유	제약업
전기·전자	기계산업
철강	건설업
통신서비스	방송 서비스

자료 : 관세청

□ 한미 FTA 레버리지 효과

- 한미 FTA 발전 방향 마련 및 향후 주요국과의 FTA에도 유리하게 활용
 - 현재까지 발효된 FTA 국가들과의 무역수지 증대 및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미 FTA의 발전 방향 마련
 - 또한 한미 FTA의 성공적인 활용착과 발전을 통해 향후 체결하게 될 FTA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협상안 도출에도 유리하게 활용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발효된 FTA	협상중인 FTA	공동연구 단계 FTA
한-칠레 FTA (2004.4.1)	한-캐나다 FTA	한중일(한일, 한중 FTA
한-싱가포르 FTA (2006.3.2)	한-멕시코 FTA	한-MERCOSUR FTA
한-EFTA FTA (2006.9.1)	한-GCC FTA	한-이스라엘 FTA
한-아세안 FTA (상품(2007.6.1) (서비스)2009.5.1) (투자)2009.9.1)	한-호주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FTA (2010.1.1)	한-뉴질랜드 FTA	한-몽골 FTA
한-EU FTA (2011.7.1)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한-페루 FTA (2011.8.1)	한-터키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미 FTA (2012예정)		한-인도네시아 FTA

자료 : 외교통상부. 주 : ()안은 발효일자

4. 향후 과제

- (시사점) 한미 FTA 발효 이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등을 극대화해야 함
 - 한미 FTA 이후 대응책 마련 : 한미 정부간 오랜 시간에 걸쳐 공식적으로 체결된 조약인 만큼 이제는 FTA 이행 법안의 발효 이후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한미 FTA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의 허점과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취약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과 산업 구조 선진화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함
 - 현재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한-EU FTA와 금번 한미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위기 타개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거시경제 효과 확대 : 한미 FTA 발효에 따르는 대미 교역과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성장 동력 활성화
 - 시장 원리에 기반한 성장 동력 확대 : 한미 FTA 발효 이후 시장의 경쟁 강화, 투명성 제고 등으로 거시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 마련
 -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력 제공. 또한,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수입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짐으로써 투자가 촉진됨.
 - 주력 수출 상품 이외 품목 수출 확대 : 한미 FTA를 계기로 대미국 주력 수출 상품 이외의 상품 수출도 확대하는 계기 마련
 - 수혜 산업 부문 경쟁력 유지 및 강화 : 한미 FTA 수혜 업종의 주요국 대비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
 - 한미 FTA 수혜 업종인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 산업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격차 유지해야 할 것임.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도록 추진

- 섬유, 의류 등 산업은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활용하여 향후 제품 경쟁력이 증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제고, 규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 중국과 일본 등과의 FTA 협상 추진 시 한미 FTA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유도
 - 미국, 유럽 등 세계 2대 경제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한중일) 경제축을 형성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 강화
-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 한미 FTA를 통해 경제 동반자를 넘어 정치적 동맹 관계 강화를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 한미 FTA를 계기로 한미간 정치적, 경제적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도모

최성근 선임연구원의 (2072-6223. csk01@hri.co.kr)